

우편집중국 최적 운영체계 연구

박희정* · 이홍철*

*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

Abstract

현대는 정보화 사회이다. 정보의 교류 없이 더구나 그 전달방법의 편리성과 신속성 그리고 정확성에 있어서 새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다른 통신수단과 경쟁해서 존재할 수 없다. 전화나 Fax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문서전달과 같은 여타 통신수단은 새롭고 다양한 기술개발에 힘입어 그 역할을 확고히 해나가고 있다. 또한 세계화 영향으로 우편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우편사업은 우편서비스의 향상, 우체국 업무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그 수준을 고도화함으로써 우편이용고객의 다양하고 고급화된 우편이용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고객 서비스 요구사항 가운데 신속한 배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분작업을 자동화하고 운송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주변 국가의 우편물 처리를 위한 노력을 보면 대규모 우편집중국을 기반시설로 한 대량 일괄처리 체계를 구축한다. 집배센터는 접수/배달, 집중국은 발착작업을 전담하는 기능을 전문화 하고 우편작업 기계의 Full Line-up을 구축하여 자동화를 달성하며 우편물 운반 작업에 상자 등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재고하고 파손을 방지하며 EDI를 응용한 종적 및 물류관리 자동화로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모의 경제와 자동화를 뒷받침하며 사송업체와의 차별화를 달성하고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편집중국과 관할지역 집배센터간 우편물이 적기에 수거되도록 하는 수송체계 정비에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추어 본 연구는 우편물 익일 배달률 70%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자동화 시설을 이용한 우편구분작업의 단순화 방안, 업무흐름절차, 우편처리시간의 단축, 수발착 스케줄링을 통하여 최적방안을 모색한다. 즉, (1)집중국 내 우편 구분작업의 단순화 (2)작업인력의 효율적 활용 (3) 집중국 내 우편처리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그 다음으로 우편집중국을 기준으로 관할 집배센터로 이어지는 적합한 우편물 운송경로와 차량소요대수 결정방법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효율성을 분석, 검증하여 정책결정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